

‘칙어’와 ‘소칙’과 ‘반전 센류’

구루미사와 겐

(와세다대학교)

◆ 국문초록

일본 근대의 ‘반전시’의 기원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일전쟁은 천황의 ‘선전소칙’ 포고로 개시된 첫 전쟁이다. 전쟁은 천황의 명령이며, 국민에 대한 ‘말씀’이다. ‘반대’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소칙’에 따른 ‘전쟁’은 ‘성전’이고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 때문에 ‘반전(反戰)’은 천황의 명령과 ‘말씀’에 거역하는 사상, 표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반전시’로 잘 알려진 요사노 아키코의 「그대여 죽지 말지어다」(1904)는 발표 당시부터 “국가의 이름으로 처벌하라”라는 맹렬한 비판을 받게 된다. ‘반전시’는 언론탄압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단시형 문학에 대한 탄압은 그 정도가 매우 극심하였다. 마이너 장르인 탓에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지만 다시금 ‘반전시’ 계보로 자리매김하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일전쟁에 탄생한 근대 센류(新選流)는, 풍자와 반어법을 구사하며 정치와 사회 전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집요한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교육칙어’를 풍자한 쓰루 아키라의 ‘반전 센류’는 그 최전선에 자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바로 이 풍자와 반어법에 주목하여 ‘소칙’과 ‘칙어’를 반전(反轉)시키는 ‘반전(反戰) 센류’를 고찰한 것이다.

‘반전시’의 계보

러일전쟁(1904~05) 발발 후 뤼순(旅順) 방어전이 한참이던 때에 발표된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의 「그대여 죽지 말지어다<뤼순 포위군에 있는 동생을 한탄하며>(君死にたまふこと勿れ<旅順口包圍軍の中に在る弟を嘆きて>)」(『明星』, 1904.9)는, “세상을 해하는 것은, 실로 그러한 사상이다”, “난신(亂臣)이며, 적자(賊子)이며, 국가의 형벌을 가해야 할 죄인이다”(大町桂月[오마치 게이게쓰])라며 맹렬하게 비판했다.¹⁾

그대여 죽지 말지어다
천황께서는 싸움에
몸소 나서지 않으셨으니
다 함께 사람의 피를 흘리며
짐승처럼 죽으라는 것은
죽음을 사람의 명예라고 한다는 것은
마음이 넓고 깊으시다면
애초에 어찌 생각하실꼬

君死にたまふことなかれ
すめらみことは戦ひに
おほみづからは出でまされ
かたみに人の血を流し
獣の道に死ねよとは
死ぬるを人のほまれとは
大みこゝろの深ければ
もとよりいかで思されむ

총 5연으로 이루어진 시 가운데 제 3연을 인용한 것이다. “아아 동생이여, 그대 때문에 운다/ 그대여 죽지 말지어다”라며 두 살 아래의 동생을 통

1) 오마치 게이게쓰의 인용은 「잡평록(雜評録)」(『太陽』, 1904.10), 「시가의 골수(詩歌の骨髓)」(『太陽』, 1905.1)에 의한다.

절히 부르며, “사람을 죽이라”, “사람을 죽이고 죽으라”라는 식의 말은 부모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읊소한다. 뤼순 공격전의 행방이나 전쟁의 승패 따위는 상관없다. 천황도 전쟁에는 절대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설마 사람을 죽이고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따위의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천황께서는 싸움에/ 몸소 나서지 않으셨으니,”, 그러니 너도 죽이지 마라, 죽지 마라. 그렇게 시는 읊소한다. 천황의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것을 이 시는 완곡히 거부하고 있다.

오마치는 “천황께서는 싸움에/ 몸소 나서지 않으셨으니”라는 구절을 들며, 민초의 여성이 충의와 용기를 가지고 국가와 천황을 받들라는 교육칙어, 더 나아가 선전소칙(宣戰詔勅)에 이의를 제기하다니, 이 얼마나 대담한 행동인가”라며 규탄한다. ‘전쟁’은 ‘칙어(勅語)’와 ‘소칙’에 의해 정당화된다. 즉 그것은 천황의 의지이며 명령이다. 그 때문에 ‘반전’은 천황의 의지와 명령에 저촉되거나 거스르는 것을 의미한다. 반전 문학·반전시는 곧 “충의와 용기를 가지고 국가와 천황을 받들라는 교육칙어, 더 나아가 선전소칙”에 저촉되고 거스르는 것이 된다.

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 처음으로 천황의 이름으로 대외선전소칙이 발효된 것은 러일전쟁(1894-95) 시기이다. 반전시는 그 이전 청일전쟁 시기에 이미 등장한다. 요사노 뢰간(与謝野鉄幹)의 「개선문(凱旋門)」(『帝国文学』, 1895.5), 미야자키 고쇼시(宮崎湖処子)의 「염전투(厭戰闘)」(『抒情詩』, 1897.4), 요시노 가조(吉野臥城)의 「히로세 강(広瀬川)」(『東京独立雜誌』, 1899.10) 등을 초기의 반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염전’이라는 표현 역시 전쟁의 ‘대의’에 저촉된다.

이겼다 졌다 말 많은 세상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나뭇가지 끝을 스치는 가을바람,
 그 소리보다 더 괴롭다.
 이 세상을 즐기는 민초를 위하여,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면.

かちぬまけぬと世の中の、
 のゝしりさわぐ声きくは、

木ず糸をはらふ秋風の、
音づれよりもなほつらし。
わが世たのしむ民のため、

いくさを廢むる術あらば。

(宮崎湖処子 「厭戦闘」)

러일전쟁 시에는 ‘비전론(非戰論)’을 내세운 『평민신문(平民新聞)』을 거점으로 하여 사회주의 시인 그룹이 활약한다. 나카자토 가이산(中里介山)의 「乱調激韻」(『平民新聞』, 1904.8.7.), 기노시타 나오에(木下尚江)의 「전쟁의 노래(戦争の歌)」(『平民新聞』, 1904.6.12.), 야마구치 고켄(山口孤劍)의 단가 7수 「전쟁을 저주하다(戦争を呪ふ)」(『平民新聞』, 1904.8.7.), 오쓰카 고잔(大塚甲山)의 「露軍月下歩哨」(「行余漫吟」所收; 『新小説』, 1904.11), 「유품이 된 가족사진(今はの写し糸)」(「毛錘七寸管」所收; 『新小説』, 1904.7) 이외에도, 『호치신문(報知新聞)』 기자로 러일전쟁에 종군한 고스기 미세이(小杉未醒)의 반전시화집 『진중시편(陣中詩編)』(嵩山房, 1904.11)과 『묘조(明星)』 및 러일전쟁을 계기로 톨스토이의 비전론의 영향을 받은 우쓰미 호마쓰(内海泡沫)의 21편의 반전시(1961년에 시집 『쇼엔(硝煙)』 간행) 등이 이 시기의 대표작이다.

「그대여 죽지 말지어다」의 영향을 받은 오쓰카 나오코(大塚楠緒子)의 「오하쿠도모우데(お百度詣²⁾)」(『太陽』, 1905.1) 역시 러일전쟁을 계기로 등장한 중요한 반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국가와 내 남편과
어느 쪽이 중요냐고 물어오면
그저 대답 없이 울뿐이다

오하쿠도모우데, 아아 죄가 되려나.

かくて御国と我夫と

2) 절이나 신사에서 일정한 거리를 백번 왕래하면서 기원하는 것을 이룸.

いづれ重しとはれなば
ただ答へずに泣かんのみ

お百度まうでああ咎ありや。

아내가 종군한 남편의 무사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남편'과 '국가'의 경중을 가려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 쪽이 중요할 테지만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한다. 만약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말한다면, 요사노 아키코처럼 “난신(亂臣)이며, 적자(賊子)다”라고 비판받을 것이 틀림없다. 천황의 의지를 거스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경내를 돌며 기도를 거듭하는 아내의 모습에서 거역하기 어려운 전쟁의 부조리와 잔혹함이 충분히 전달되어 온다.

단시(短詩)형 문학의 탄압사건

반전시의 전개를 생각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일반 독자들의 투고 작품이다.³⁾ 『평민신문』 독자투고란에는 익명의 반전시가 다수 게재되어 있다. 그 대부분이 단카(短歌), 하이쿠(俳句), 설훈(川柳)와 같은 이른바 전통 단시이다.

감자를 캐는 내 손에 총을 잡으라고 한다,
살무사의 세상이어라, 악마의 세상이어라

芋を掘る我手に銃を持ってといふ、
虻の世なり悪魔の世なり

(海谷野人, 「ああ戦争」, 1904.2.21.)

3) 다카야나기 다이조(高柳泰三)의 『‘반전평화’의 원류를 찾아서 -메이지문학감상(反戰平和)의源流をたどる-明治文学鑑賞』(かもがわ出版, 1998.8)에 『평민신문』과 『무로(牟婁)신문』 등의 지방신문에 게재된 익명의 반전시가 소개되어 있다.

병사(兵士)로 3년의 의무를 마치고 돌아오니
고향은 엉망진창이 된 논밭 아홉이랑

のの終えぬれば
は荒れたり田畑

(中岡汪洋, 「血涙吟」, 1904.2.7.)

또한, 『평민신문』에 무명시절의 다케히사 유메지(竹久夢二)가 익명으로
반전 센류를 발표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용사의 아내는 낫또(納豆) 장사
3년 만에 팔 잃은 아버지에게 안겨 잠들다

かゝる世に勇士の妻は納豆売
三年振手のない父に抱かれて寝

단시형 문학은 시 가운데에서도 풀뿌리적인 확장성을 갖는 대중적인 장
르라고 할 수 있다. 단가, 하이쿠, 센류는 각각 전통적인 결사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동인들을 보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때문에 ‘소
칙’을 거스르는 ‘반전’ 의식은 단시형(短詩型) 문학에서는 시 장르보다 훨씬
뿌리 깊고 그 파급력도 강하다.

실제로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말에 일어난 『센류인(川柳人)』 필화사
건, 그리고 태평양 전쟁 개전 전야인 1940년에 일어난 『교다이 하이쿠(京大
俳句)』 사건은 프로, 아마추어를 막론하고 전국에 확산된 수많은 풀뿌리 단
시형 문학 애호가들과 표현자들을 치안유지법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송두리
째 체포한 일본 근대시사상 최대의 탄압사건이다.⁴⁾

손과 발을 잃고 마루타가 되어 돌아오다
手と足をもいだ丸太にしてかへし(鶴彬)

4) 오하라(大原)사회문제연구소 편, 『일본노동연감특집판 태평양전쟁 하 노동운동
(日本労働年鑑特集版 太平洋戦争下の労働運動)』(労働旬報社, 1966.10)에 단시
형 문학 탄압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인간에게 물릴 재갈을 가져오라
人間へハメル轡を持って来い(鶴彬)

총 맞아 웃으며 죽을 때까지 길들이다
射抜かれて笑って死ぬるまで馴らし(堤水叫坊)

전쟁이 복도 안쪽에 서 있다
戦争が廊下の奥に立ってゐた(渡辺白泉)

대포소리에 새와 짐승 물고기 모두 우울하게 얼어붙다
砲音に鳥獸魚介冷え曇る(西東三鬼)

대전이 시작되는 이 날을 위해 감옥에 보낸 것이리라
大戦起るこの日のために獄をたまはる(橋本夢道)

1928년 개정에 따라 치안유지법에 ‘목적수행죄(目的隨行罪)’가 새로 추가되었다. 국체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결사 조직은 물론, 그러한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요컨대 단시형 문학 행위나, 결사 조직, 단시형 문학을 발표하는 행위 일체를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국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모두 처벌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사’를 거점으로 한 단시형 문학, 특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하이단(俳壇)’, ‘류단(柳壇)’에 반기를 든 신흥 하이쿠, 신흥 센류에 대한 감시는 중일전쟁 이후 보다 강화되어 갔다.

지금까지 ‘봉건적 운문’, ‘제2 예술’이라며 저속하게 보고, 시 장르 중에서도 낮게 평가되어 온 이 단시형 문학을 ‘반전시’의 계보로 자리매김하거나 문제시한 연구는 없다. 단가나 하이쿠 장르도 멸시하던 센류의 경우는, 반전시의 계보는커녕 지금까지도 근대시·문학사 기술에서 누락되어 왔다. 하이쿠의 사서(史書)는 있지만, 센류 문학의 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대 센류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며 정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 상황이다.⁵⁾

2014년 <장마 하늘 아래에 ‘9조를 지켜라’ 여성 데모(梅雨空に『九条守れ』の女性デモ)>라는 아마추어 하이쿠를 사이타마시공민관(さいたま市公民館) 월보가 게재를 거부한 사건을 계기로, 최근 전쟁 전 단시형 문학 탄압 사건이 재조명되었다.⁶⁾ 무명의 독자와 애호가들의 투고 작품,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의 표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이 전쟁 전의 사건과 닮아있다. ‘반전시’의 계보로부터 단시형 문학을 재평가하자는 분위기가 생겨난 것이다.

러일전쟁 후 탄생한 ‘신센류(新川柳)’

근대 센류의 시작은 러일전쟁 개전과 같은 해이다. 근대 센류 중흥의 선조로 일컬어지는 이노우에(井上劍花坊)가 신문 『니혼(日本)』 지상에 센류 코너 「신제 야나기다루(新題柳樽)」를 마련한 것은, 1904년 7월의 일이다. ‘야나기다루’는 에도(江戸) 고(古)센류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야나기다루(柳多留)』에서 유래했다. 즉, 「신제 야나기다루」에는 ‘고센류’에 대한 ‘신센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무미건조한 지적유희·언어유희를 수반하는 메이지 시대의 센류, 이른바 ‘교쿠(狂句)’를 혁신하고, 날카로운 풍자와 비판의 시선이 정치와 사회 전반을 향하는 ‘신센류’를 제창하고, 일반 독자에게 투고를 독려한다. 앞서의 신문 『니혼』에서 마사오키 시키(正岡子規)에 의해 단가와 하이쿠의 혁신이 전개되었는데, 「신제 야나기다루」는 단시형 문학 혁신의 센류 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아 겐카보(劍花坊)는 이듬해에 신센류 결사 ‘류손지센류카이(柳樽寺川柳会)’를 결성한다. 러일전쟁의 ‘대의’를 거스르는 ‘신센류’라는 이름의 반전시가 이렇게

5) 一叩人, 「창시 센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創始川柳はプロレタリア文学)」(『季刊鶴彬研究』 14号, 1983.5)에 “하이쿠사(俳句史)”는 있는데, ‘센류사(川柳史)’는 없다고 하면, 다른 연구자들은 아마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센류사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6) 「종전기념일 대담 전전의 공기에 항거하여(終戦記念日対談 戦前の空気に抗って [金子兜太×いとうせいこう])」(『東京新聞』, 2014.8.15.)에서는, 「장마 하늘 아래에 ‘9조를 지켜라’ 여성 데모」 게재거부 사건과, 전전의 신흥하이쿠운동 탄압의 역사를 겹쳐서 논의하고 있다.

해서 전국에 파급되어 가게 된다. 다음은 류손지센류카이의 기관지 『센류』에 게재된 반전 센류를 살펴보자.

1906년 7월 「센류」에는, ‘용(勇)’이라는 단어를 테마로 동인들이 함께 노래한 과제영(課題詠) 31구가 게재되어 있다.

용감한 병사, 손도 없고 발도 없고
勇敢の兵士手もなし足もなし(空笑)

발군의 용사는 마을의 열간이고
拔群の勇士は村の抜作で(多々鳴)

용이라는 글자를 마오토코(マ勇)이라고 읽는 심상과
勇の字をマ男と読む尋常科(北雪)

용감한 최후를 말하는 가여움
勇ましい最期を話す気の毒さ(等外坊)

단시형 문학은 개인주의적인 근대문학과는 대조적으로 집단으로 창작하고, 집단으로 노래하고, 집단으로 즐기는 ‘좌(座)’의 문예이다. 센류도 예외가 아니다. 과제영이라는 경쟁 방식은 단순히 개개인의 실력이나 우열을 경쟁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하나의 과제에 대한 복수의 시점을 명확히 하고, 그 차이를 발견하고, 즐기기 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과제를 복수의 시점으로 조명하고 그 차이를 향수한다. 물론 어떤 시점이 그 자리에서 나올지는 알지 못한다.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 의외성과 우연성이 바로 과제영의 재미라고 하겠다. 과제는 창작 측면에서는 ‘계약’이 있지만, 그러나 ‘계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재미를 발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용이라는 글자를 마와 용이라고 읽는 심상과(勇の字をマ男と読む尋常科)」를 노래한 작자는 ‘북설(北雪)’이라는 익명의 무명 류인(柳人)이다. 물론 이 구는 ‘勇’이라는 한자를 읽지 못하는, 습득하지 못한 학생을 야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러일전쟁 후 ‘勇’이라는 글자를 수신 수업에서 다루는 것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 본 것이다. 이 구의 배경은 아마도 심상소학교의

수신 수업일 것이다. 당시 수신 교과서에 게재되었던, 전사하여도 돌격나팔을 입에서 떼지 않았던 기쿠치 고헤이(木口小平)의 청일전쟁에서의 ‘의용충의(義勇忠義)’를 상찬하는 내용을 학생들 모두가 낭독, 제창하는 수업이다. 이 ‘미담’은 청일전쟁 후 1902년부터 국정 수신교과서에 수록되었다.

기쿠치 고헤이는 적의 총에 맞았습니다만, 죽어서도 나팔을 입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キグチコヘイ ハ テキ ノ タマ ニ アタリマシタ ガ、シンデモ ラツパ
ヲ クチカラ ハナシマセン デシタ。

‘의용충의’의 ‘勇’이라는 글자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읽는 법을 연습한다. ‘유(ゆう)’라고 읽습니다. ‘다쿠마시이(용감하다)’의 ‘유’입니다. ‘유칸(勇敢)’의 ‘유’입니다. 여러분도 기노시타 이등병을 따라서 ‘의용충의’한 병사가 됩시다. 천황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하게 적으로 돌진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학생들을 지명하여 반복해서 읽게 하고, 교과서를 낭독하게 한다. 어떤 학생이 지명되었을까. 아마도 한자는커녕 히라가나도 잘 읽지 못하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학생들이었을 게다. 몇 번을 반복해서 가르쳐도 ‘의용충의’의 의미는커녕, ‘勇’이라는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학생 말이다. 그 이전에 교사의 말 따위는 듣지 않는, 머릿속에 넣으려 하지 않고 즐기만 하는 학생들 말이다. 읽어 보라는 교사의 지명에, ‘勇’이라는 글자를 ‘マ’라는 자와 ‘男’이라는 자로 나누어 읽는다.

기노시타 이등병처럼 ‘マ男’답게 적에게 돌진합니다.

‘마오토코(マ男)=마오토코(間男)’라는 단어에서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의 ‘마오토코(間男)’를 떠올린다. 그 단어가 교실 안에 울려 퍼졌을 때 교실의 분위기와 교사의 표정이 어떠했을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예상을 빗나간 오독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을까. 아이들은 박장대소를 했을까. 과연 교사는 웃었을까. 역정을 내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의외라며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말해 주는 여유 있는 교사였을까. 그런 여유 있는 교사였다면 애초부터 그런 진부한 수신 수업 따위는 하지 않았을 터다.

학생은 틀리게 읽었다. 잘못 읽은 오독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바르게 읽는 것보다 틀리게 읽는 것이 '정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틀리게 읽은 학생 쪽이 바르게 읽은 것이 된다. 교사와 교과서가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읽는 것이 '잘못된' '틀린'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선(前線)'을 지탱하는 전쟁하의 일상을 가리키는 '총후(銃後)'에는 남자가 없다. 다양한 사정으로 중군하지 않고 총후로 남은 남자는, 모두 '마오토코(マ男)=마오토코(間男)'가 된다. 그것이 전쟁에 남편을 빼앗긴 총후의 현실이다. 남편의 중군으로 총후에 남겨진 아내는 '마오토코(間男)'의 먹잇감이 된다.

전쟁으로 인해 부모가 흩어져 살아가는 총후의 일상이 아이들의 시선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勇'이라는 글자를 "바르게 읽으세요."라는 교사의 지도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바르게, 순종적으로 교사가 시키는 대로 낭독할 때에는 알지 못했던, 보이지 않던 '진실'이 오독을 통해 우연하게도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 부상하게 된 것이다.

센류의 패러디 정신

교육은 의외성으로 넘쳐흐른다.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하다. 아이들은 교사의 예상을 뛰어넘는 존재다. 아이들은 결코 순종적이지 않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교사와 어른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으로 도전해 오는 존재인 것이다. 틀리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답만 말하는 학생이 아닌, 당당하게 틀리는 학생의 존재 또한 소중하며 필요하다. 좋은 머리에, 사리분별을 잘하는, 순종적인 학생만 있다면 교육이나 학교도 실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이 센류는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勇'이라는 글자를 분해하면 'マ'와 '男'가 된다. '勇'이라는 글자에는 'マ男=間男'가 숨겨져 있다. 용감하게 죽는 병사, 총후의 아내, 숨죽이며 접근해 오는 마오토코. 그것을 비애와 함께 응시하는 아이들. 전쟁으로 영망진창이 된 서민의 삶의 비참함을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 어린아이의 시선이 예리하고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비록 틀리게 읽은 것이긴 하지만 그 얼마

나 훌륭하게 전쟁과 ‘수신’의 기만을 꿰뚫고 있는가. 이 얼마나 기막힌 우연인가. 낙서 같은 언어유희 하나로, ‘수신’의 기만, 천황의 이름하에 정당화되었던 전쟁의 기만을, 이렇게 신선하게 웃음과 풍자를 전해주는 문학은 아마도 센류 이외에 없을 것이다.

아나키스트 시인 아키야마 기요시(秋山清)는 “하이쿠가 문학예술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센류가 문학이라는 것을, 그 격렬함과 통속적인 것이 함께 어우러진 생활에 밀착된 것임을 잊게 한다.”, “비예술의 문학”이라는 점에 “센류의 금지”가 있다고 지적한다.⁷⁾ 센류의 특징은 그야말로 “생활에 밀착된” 풍자가 섞인 언어유희, 낙서 같은 언어유희에 있다. ‘勇’이라는 글자를 ‘マ男’로 분해하는 것. 이 노래는 아이들의 순수한 낙서와 같은 언어유희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재미없고 진부한 ‘수신’이라는 이름의 세뇌교육. 천황을 위해 죽는 것을 찬미하는 사기의 켈트 교육. 거짓으로 점철된 진부한 교과서의 기술을 이렇게 재미있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교사가 눈치 채지 못하게 슬며시 ‘勇’이라는 글자와 나란히 ‘マ男’라 ‘間男’ ‘마오토코’라는 글자를 늘어놓은 것이다. 또 교사가 눈치 채지 못하게 이 낙서를 주위의 친구들과 키득거리며 돌려보았을지 모른다. 또 이 글자를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 ““マ男’라고 읽는 거야.”라며 장난스럽게 거짓말을 했을지 모른다. 그 친구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정말로 ‘マ男’라고 읽었는지 모른다.

어찌되었든 천황이 신민에게 전하는 ‘말씀’인 ‘교육칙어’를 전하는 ‘수신’ 수업인 것이다. 비판이나 장난이 있어서는 안 되며, 유창하게 읽어내야 하며, 오독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런데 분명 ‘勇’이라는 글자는 ‘マ男’로 분해될 수 있다. 권력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교육은, 교사는, 국가는, 아이들이 ‘勇’이라는 글자를 ‘マ男’로 오독하는 것까지 관리하고, 예측하고, 금할 수는 없는 것이다. “マ男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 하나 주의를 주며 다닐 수도 없는 것이다.

센류는 어떻게든 권력이 억압해 오는 것을 되받아치고, 환골탈태하고, 우롱하려는 정신으로 넘쳐흐른다. 언제나 조용히 수업에 임해야 하는 아이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을 불만과 비판과 분노가 이 작은 오독을 통해 통쾌하게

7) 秋山清, 「鶴彬」(『思想の科学』, 1960.9)

터져 나온 것이다. 이론(異論)도 반론도 허용되지 않는 '수신'의 기술을 이 대로 침묵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거꾸로 바꿔 읽고, 우롱하는 것. 센류에는 반드시 이러한 패러디 정신이, 비판과 저항의 의지가 숨 쉬고 있다. 크게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하는 속내, 그 누구도 공공연하게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것을, 금지된 표현과 은유에 귀를 기울이고 끌어 모아 시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센류라는 장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은 교육을 지탱하고 정당화한다. '교육칙어'는 그것을 위한 중요한 기둥이다. 반전은 '교육칙어'에 대한 모반(謀叛)이다. 센류에는 전쟁을 지탱하는, 그러한 교육에 대한 예리한 비판의 시선이 존재한다. 센류가 저속한 것으로 간주되고, 문학사나 시사(詩史)에 기술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오늘날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정교과서에도 센류는 게재되어 있지 않다.

쓰루 아키라(鶴彬)의 반전 센류

'교육칙어'와 '수신'에 예리한 비판을 가한 센류를 생각할 때,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센류진』 필화사건으로 체포된 쓰루 아키라의 존재이다. 쓰루 아키라는 '교육칙어'와 '수신'을 비판적으로 응시한 센류를 다수 남기고 있다.

수신에 나오지 않는 효행, 음매부
修身にない孝行で淫売婦(『蒼空』, 1936.2)

모국을 약탈한 나라의 역사를 복습하는 큰 목소리
母国掠め盗った国の歴史を復習する大声(『火華』, 1936.12)

아래와 같이 심상소학교 창가 「모모타로(桃太郎)」의 세계를 야유하는 3행 센류도 있다.

쫓그라든 위장에 주자
귀신을 정벌하는

수수경단!

しなびた胃袋にやろう
鬼征伐の
キビ団子! (『川柳人』, 1934.3)

“수신에 나오지 않는 효행, 음매부”는 가장 잘 알려진 쓰루 아키라의 센류 가운데 하나다. 사타카 마코토(佐高信)는 이 노래에 대해 “도덕교육을 이만큼 격렬하게 뒤집어 보인 것은 없다.”⁸⁾고 지적한다. 충의, 효행, 복종을 강조하는 ‘수신’의 모순을 쓰루 아키라는 야유하며 냉소를 보내고 있다. 당시 빈곤으로 부모와 형제를 위해 몸을 팔러 간 소녀들의 입장에 보면, ‘음매부’도 훌륭한 효행의 하나가 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수신 교과서의 ‘효행’ 항목에 ‘음매부’를 집어넣는 것이 어떨까. 이 센류는 그러한 반어법을 사용하여 비판한 것이다.

“모국을 약탈한 나라의 역사를 복습하는 큰 목소리”는, 조선인에 대한 황민화교육이 시작된 1936년에 발표된 것이다. 「반도 태생(半島の生れ)」이라는 제목의 연작 센류 중 한 구절이다.⁹⁾ “복습”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암창(暗唱)·제창(齊唱)·봉창(奉誦)을 다시 하도록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잘못 읽으면 다시 읽도록 한다. 조선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국정교과서인 국사를 낭독하는 정경을 떠올려 보자. 교과서 기술을 ‘바르게’ 낭독하지 못한 것은 물론 아마도 일본어를 ‘바르게’ 발음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몇 번이고 다시 읽도록 시켰을 것이다. 그래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교실 안은 일본인 아이들의 실소, 냉소로 넘쳐흐른다.

기미가요(君が代) 제창, 교육칙어 봉독, 황국신민 서사(誓詞) 암창. 예전에는 학교나 직장이나 군대, 가정, 거리 곳곳마다 큰 소리로 암창·제창·봉독이 강제되었다. 대일본제국이라 함은 곧 암창·제창·봉독의 제국이기에

8) 大原社会問題研究所編, 『日本労働年鑑特集版 太平洋戦争下の労働運動』(労働旬報社, 1965.10)에 단시형 문학 탄압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9) 川村湊, 「鶴彬とプロレタリア川柳」(『国文学解釈と鑑賞』, 2007.8)에는, 당시 센류계(류단)에 조선인을 차별하고 조롱하는 작품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 쓰루 아키라의 「반도 태생」은 유일하게 예외적인 작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도 했던 것이다. 참배, 요배와 함께 암창·제창·봉독을 하는 것이 곧 '일본인', '신민', '황민'의 증거이자, 맹서에 다름 아니었다. 1936년부터 본격화된 황민화정책에서는 조선어 사용 금지, 신사참배(神社參拜), 궁성요배(宮城遙拜), 창씨개명과 함께 이렇듯 '일본인'의 증거이자 맹서인 '아름다운 일본어' '바른 일본어'의 암창·제창·봉독이 특히 조선인에게 강제되었다. 잘 읽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오독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읽지 못하고 발음하지 못하는 것은 곧 '일본인'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국가탄생신화부터 시작되는 '국사'의 국정교과서를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조선인 역시 제대로 낭독하고, 제대로 발음해야 했다. “勇이라는 글자를 ㄹ이라고 읽었던 심상과” 학생들처럼 오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행동이었던 것이다. 발음을 틀리는 것이 오히려 '바르고' '아름다운' 읽기가 되는 것이다. 암창·제창·봉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이었다. 그 누구도 자진해서 했을 리 없다. 마지못해 했을 것이다. 암창·제창·봉독이 차별을 만들어낸다. 이 노래는 반어법을 사용해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쫓그라든 위장에 주자/ 귀신을 정벌하는/ 수수경단!” 역시 제창을 비판하는 노래이며, 문부성의 창가 교육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는 3행 설훈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와 도기 젠마로(土岐哀果)의 3행 단가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이 형식은 3행으로 이루어진 심상소학교 창가 「모모타로」와도 관련이 있다. 1911년에 심상소학교 교과서로 채택된 창가 「모모타로」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모모타로, 모모타로,
허리에 찬 수수경단,
하나 나한테 줄래.

줄게, 줄게,
지금부터 귀신 잡으러,
따라 가면 주지.

가자, 가자,
너를 따라서 어디든지,
부하가 되어 따라가자.

자 앞으로, 자 앞으로,
한 번에 공격해서 한 번에 쳐부수자,
모두 부숴버리자 귀신의 섬.

재밋다, 재밋다,
남김없이 귀신을 굴복시켜,
전리품을 영치기 영차,

만만세, 만만세,
같이 간 개, 원숭이, 꿩은,
용맹하게 수레를 영치기 영차

桃太郎さん桃太郎さん、
お腰につけた黍団子、
一つわたしに下さいな。

やりませうやりませう、
これから鬼の征伐に、
ついて行くならやりませう。

行きませう行きませう、
あなたについて何処までも、
家来になつて行きませう。

そりや進めそりや進め、
一度に攻めて攻めやぶり、
つぶしてしまへ鬼が島。

おもしろいおもしろい、
のこらず鬼を攻めふせて、
分捕物をえんやらや。

万万歳 万万歳、
お伴の犬や猿雉子は、
勇んで車をえんやらや。

할아버지나 할머니처럼 열심히 일만 하는 것에 염증을 느낀 복숭아에서 태어난 모모타로. 일하기 싫다는 이유로 홀로 귀신을 정벌하러 길을 떠난다. 도중에 가난한 '무산자'인 개와 꿩과 닭에게 수수경단 하나 씩 나눠주며 귀신이 사는 섬으로 들어가 침략의 선두에 서게 된다. 모모타로 무리에게 억울하게 침략당하여 살해당하고 약탈당한 귀신의 시점에서 창가 「모모타로」의 세계를 훌륭하게 변용시킨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모모타로」(『サンデー毎日』, 1924.7)를 쓰루 아키라는 다분히 의식적으로 차용하고 있다.¹⁰⁾

창가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 열심히 일하기보다 약자의 것을 빼앗는 편이 빠르다는 것이다. 수수경단 '하나'로 복종을 강요당한 부하들은 약탈품 앞에서 부조리한 과거 따위는 금방 잊어버릴 것이다. 입신출세를 위해서는 전쟁이 제일이다, 약탈이 제일이다. 그것이 심상소 학교의 숭고한 가르침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쓰루 아키라의 센류는 반어법과 냉소를 통해 독자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반전시의 어두운 그늘

쓰루 아키라의 반전 센류는 보수적인 전통 센류의 밀고로 인해 탄압받았다. 『센류진』 필화사건은 쓰루 아키라를 비롯하여 류손지센류카이에 비판적이었던 오사카(大阪)의 모리케이 규시(森鷄牛子) 주간의 『샤미센구사(三味線草)』가 『센류진』에 수록된 반전 센류를 특고(特別高等警察)에 고발한 것에서 촉발되었다. 모리케이 규시는 쓰루 아키라의 센류를 '반역시', '비국

10)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모모타로」에서는, 굶주린 빈민인 개, 꿩, 원숭이를 약자로 설정하고, 이들을 수수경단 '하나'가 아닌 '반쪽'으로 복종시킨다. 모모타로가 보다 더 교활하고 악독한 자본가로 표상되고 있다.

가적 작품'이라고 명명하고, “일본인 시인들이 군가를 헌납하고 센류가인이 황군위문 센류회를 개최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신들은 일본인 시인이라는 것에 불복하는 것인가. 국가관념은 어디로 간 것인가”(『三味線草』, 1937.9)라며 규탄한다. 그 발언은, 오마치 게이게쓰가 요사노 아키코를 고발할 때 언급한 “난신이며, 적자이며, 국가의 형벌을 가해야 할 죄인이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센류진』 필화사건은 지금도 불분명한 점이 많다. 이 사건으로 도요타마(豊多摩) 형무소에 투옥된 쓰루 아키라가 이듬 해 1938년 옥중에서 이질에 걸려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한다. 당시 투옥된 이질에 걸려 사망한 사례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는데, 특고가 이질균을 주사했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의 죽음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¹¹⁾

쓰루 아키라의 유품과 자료, 원고와 미완성 원고는 물론 사적인 메모와 서간마저 특고에 압수되거나 폐기되어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수사를 두려워한 가족과 지인,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폐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비국민’, ‘국적’이라고 매도되어 고향 친척들과도 인연이 끊기고, 옥중 사식도 넣어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고 한다. 쓰루 아키라의 족적은 아직도 어둠 속에 가려져 있다.

전후 지금까지 쓰루 아키라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반역시’, ‘비국가적 작품’이라고 고발한 『샤미센구사』를 비롯한 센류계(류단)는 “쓰루 아키라는 반전 센류인으로 이름도 노래도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¹²⁾ 다이마쓰사(たいまつ社)의 『쓰루 아키라 전집』(1977)을 편집한 이코진(一叩人, 본명은 命尾小太郎)이 1960년대부터 집념을 가지고 추적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사와치 히사에(澤地久枝)가 『전집 증보판』(1998)을 복각하지 않았다면, 쓰루 아키라의 족적은 지금도 묻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집에 수록된 것은 어디까지나 당시 어렵게 발표한 작품, 발표가 허락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11) “황군의 죄명은 대부분 증언자들에 의해 밝혀졌지만, 특고와 관련된 일은 아직 그 누구도 증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고가 실제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증언자가 나타나면 이질균을 접종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겠지만, 쓰루 아키라는(731부대용어로) 마루타 1호가 되지 않았을까요.”라고, 중국인 생체해부를 맡아 패전 후 전범으로 투옥된 의사 유야사 겐(湯淺謙)이 증언한 바 있다(岡田一杜・山田文字編, 『川柳人 鬼才(鶴彬)の生涯』, 日本機関紙出版センター, 1997.9).

12) 井之川巨, 「川柳は戦争をどう詠んだか」(『新日本文学』, 2001.4)

■ 참고문헌

- 中島国彦 篇, 『文藝時評大系 明治篇 第8卷(明治38年)』, ゆまに書房, 2005.
- 高柳泰三, 『「反戦平和」の源流をたどる—明治文学鑑賞』, かもがわ出版, 1998.
- 大原社会問題研究所 編, 『日本労働年鑑特集版 太平洋戦争下の労働運動』,
大原社会問題研究所デジタルサイト
[<http://oohara.mt.tama.hosei.ac.jp/rn/senji2/rnsenji2-220.html>].
- 一叩人, 「創始川柳はプロレタリア文学」, 『季刊鶴彬研究』 14号, 鶴彬研究所,
1983.5.
- 「終戦記念日対談 戦前の空気に抗って(金子兜太×いとうせいこう)」, 『東京新聞』,
2014.8.15
[東京新聞デジタルサイト <http://www.tokyo-np.co.jp/hold/2014/taidan140815>].
- 「対談 世代を超えて語り継ぎたい戦争文学・鶴彬の巻(澤也久枝×佐高信)」, 『世界』,
岩波書店, 2007.5.
- 川村湊, 「鶴彬とプロレタリア川柳」, 『国文学解釈と鑑賞』, 至文堂, 2007.8.
- 岡田一杜・山田文子 編, 『川柳人 鬼才(鶴彬)の生涯』, 日本機関紙出版センター,
1997.8.
- 井之川巨, 「川柳は戦争をどう詠んだか」, 『新日本文学』, 2001.4.

❖ ABSTRACT

Imperial Rescript (Chokugo), Imperial Rescript (Shousho) and an Anti-war Senryu

Ken Kurumisawa

Modern Japanese “Anti-war poetry” originates from Sino-Japanese war and Russo-Japanese war period. Sino-Japanese war was started by an Imperial rescript of war declared and ordered by the Japanese Emperor to the Japanese citizens. With this declaration, the Emperor gave a message to the population that Objection was not acceptable. This Declaration of Imperial Rescript (Shousho) became justified as being a Crusade or Holy war. Any Anti-war stance was considered an ideology of revolt against the Emperor and his order of Imperial rescript (Okotoba). This was why when Akiko Yosano’s “Don’t you dare lay down your life” (1904) was published, it received harsh criticisms such as “be punished in the name of the nation”. Anti-war poetry as a way of free speech was suppressed. Short poem was especially targeted. Because it is seen as a minor genre, short poem has been passed over. It needs to be reappraised for its importance as a category of anti-war poetry. Notably, modern short poem (New Senryu) has been under oppression and relentless surveillance because of its stance of criticizing politics and society in general by making full use of satire and irony. A supreme example of satirizing of 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 was the “An anti-war poetry” by Akiri Tsuru. This treatise is a study of how ironical technique from “An anti-war poetry” inverts the meaning of “Imperial decree” and “Imperial rescript”.

■ 논문접수일 : 2018. 05. 10

■ 심사완료일 : 2018. 05. 31

■ 게재확정일 : 2018. 06. 30